



김종부 대표이사
(주)엔유씨전자

가이디거와 디자인으로

80년도 일본 출장길에 처음으로 신간센을 타게되었다. 오사카에서 동경까지 고속철을 탔기 때문일까? 내가 하고있는 일에 일본과의 경쟁력을 생각했다. “한 5년만 열심히 하면 따라 잡을 수 있을거야” 그 뒤에 다시 일본에 갔을 때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또다시 일본을 갔을 때는 “지금의 역량이라면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일본이 무조건 뛰어나고 좋다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소형가전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일본이 소형가전 분야는 세계최고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신회 출장이 있었고 최근 일본바이어와 수출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의 느낌은 “이제 경쟁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다” 라는 생각

이 들었다.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벽을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은 무엇이었을까?

20년이란 시간의 흐름만은 아닐 것이다. 20년 전에는 “만들면 팔린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고 사용하는데 문제만 안 생기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그리고 시장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내가 만든 제품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고객의 생각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된다. 보다 편리한 기능과 아이디어가 함축된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노력한다.

그 노력은 결국 고객을 만족시킨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업경쟁력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이제는 중소기업도 품질만이 기업경쟁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기술화 시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동력인 중소기업들이 창의
력있는 아이디어와 훌륭한 디자인을
세계최고 기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가동시켜
진정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허출원하고 변경된 기술은 이미 출원된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정한다. 더욱이 실용신안의 경우는 반듯이 기술평가 신청을 하여 기술평가를 받아 기술적 권리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용신안특허이고 의장특허인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크게 내기도 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최근 들어 특허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디자인을 가진다고 다 자신의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관리란 아이디어가 선정되어 상품 기획단계에 접어들면 첫째, 특허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획하는 아이디어가 기본적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둘째, 특허와 실용신안이 충분히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것이란 검토가 끝난 상태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한다. 셋째, 특허 출원된 기술을 토대로 제품개발과 디자인개발을 병행하며 넷째 개발된 디자인으로 의장을 출원하고, 타사의 카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의장을 출원한다. 다섯째, 제품 개발과정에서 변경된 기술을 검토하여 추가된 기술은 특

내용을 개발자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소홀히 할 경우는 어려운 연구와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이런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기관이 있기에 이런 지원기관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관리시스템 안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고 관리하면 훌륭한 세계최고의 특허가 되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여도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특허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아주 조그마한 차이가 세계최고 명품을 만들 수도 있고 회사가 도산을 하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동력인 중소기업들이 창의력있는 아이디어와 훌륭한 디자인을 세계최고 기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가동시켜 진정한 기업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발특2003/8

